

일주론



과천공무원불자회 범회서 법문 조계종 전계대화상 성수 스님은 8월 28일 오후 7시 과천 보광사 대웅전에 서 열리는 과천청사공무원불자연합회 9월 정기법회에서 법문한다.



파라미타 분회활동 프로그램 공모 파라미타정소년회회장 도후 스님은 8월 31일까지 전국 파라미타 지도자를 대상으로 분회활동 프로그램을 공모한다. (02)723-6165



금동약사여래불 조성 봉안법회 서울 현성정사 주지 현성 스님은 8월 27일 오전 10시 흥은동 흥은정사 금동약사여래불 조성 봉안법회를 봉행한다. (02)3216-4822



21기 불교 귀능학교 운영 인드라광생명공동체 상임대표 도법 스님은 9월 2일부터 서울 서초구 인드라광교육성센터에서 21기 불교 귀능학교를 운영한다. (02)576-1886



蓮 대중화 공로 농림부장관 표창 강화 선원사 주지 성원 스님은 8월 5일 '논두렁 연꽃축제' 개최 등 연의 대중화 공로를 인정받아 농림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동국대 이영찬 교수 마르퀴즈 후즈후 등재

동국대 경주캠퍼스 이영찬 교수(전자상거래학과·사진)가 세계 3대 인명사전 중 하나인 <마르퀴즈 후즈후(Marquis Who's who Science & Engineering, 10th Edition, 2008-2009)>에 등재된다. 미국의 마르퀴즈 후즈후는 "지식경영과 데이터마이닝 분야에 관한 꾸준한 연구 성과와 저명한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된 탁월한 연구 업적을 높이 평가해 해당 인명사전에 등재된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이영찬 교수는 현재 전자상거래학과 조교수로 재직 중이며 SCI, SCIE저널에 다수의 논문을 발표하는 등 활발한 연구 활동을 펼치고 있다. 여수영 기자

조계종 제3기 포교연구위원 명단

정우 스님(불교경전번역연구원 원장), 미산 스님(중앙승가대 포교사회학과 교수), 법장 스님(서울 법장사 주지), 보림 스님(안산 보문선원 주지), 율호 스님(하동 정계사 강사), 분각 스님(중앙승가대 불교학과 교수), 상덕 스님(옥수종합사회복지관 관장) 스님, 윤승용 한국종교문화연구소 이사, 박영희 금강선원 선수행지도, 김호기 동국대 강사, 성준기 SBS PD, 박규보 인터넷 불교음악 감상실 운영, 김우선 축제기획 불무 대표, 이보형 한국고승반영학회 회장, 이영철 NGO미래경영연구소 소장, 박영동 동대부여교 교법사, 김일평 동국대 강사, 조준호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전임연구원.

“공연 준비하느라 더위도 몰라요”



명인명무전 4회연속 공연 앞둔 동국예술기획 박동국 대표

은 동국예술기획 20주년 기념 공연, 미국 공연, 전통문화타운 조성 등의 일로 가득 찼다. 우선 9월 9일 부산에서 열리는 제55회 한국의 명인명무전 준비가 현안이다. 주제가 '팔도팔색 살풀이춤'이다. "이 공연에서는 양산화춤의 기능보유자 김덕영 씨가 '연등나래살풀이춤'을 무대에 올립니다. 이 무대는 불교와 살풀이춤의 만남이라는 숨겨진 전통을 처음으로 드러내는 자리여서 저도 기대가 큼니다." 도살풀이(양길순) 남도살풀이(송준영) 대구 살풀이(권명화) 호남살풀이(최선) 원향살풀이(엄옥재) 영남살풀이(김진홍) 살풀이춤(김주) 등의 프로그램도 흔하게 볼 수 없는 대가들의 명무다. 박 대표는 부산 공연에 이어 10월에는 서울 국립국악원 예약당에서 11월에는 통영에서 12월에는 울산에서 연이어 명인명무전을 갖는다. 기획에서 대관 섭외 홍보 무대 인쇄 등 모든 일을 혼자 손으로 해내는 박 대표는 "우리 문화에 대한 사랑이 가장 큰 밑천"이라 말한다. 그러나 그를 아는 사람들은 안다. 공연의 횟수가 늘어나고 세월이 지나면서 그가 사는 집의 평수와 보증금 월세가 내려간다는 것을, 요즘은 거의 원룸 수준의 집에 살고 있는 박 대표는 지망으로 뛰어 다니느라 집에 자주 가지도 못한다. 그렇게 뛰어 온 공연 기획의 세월이 18년, 이제 20주년을 앞두고 박대표는 2009년에는 아시아춤 페스티벌을 성대히 열 생각이다. 또 20주년 기념 80회 공연을 미국 뉴욕과 로스앤젤레스에서 펼치기 위해 현지와 접촉 중이다. "우리 전통문화를 세계적인 브랜드로 만들 수 있는 길을 모색하고 있어요. 전통문화를 콘텐츠로 하는 대규모 테마파크(30만 평 이상)를 조성하고자 일부 지역 자치단체와 의논하고 있습니다. 한국어로 된 공연장과 악기 박물관, 음식 박물관 도자예술촌과 체험공간 등 다양한 콘텐츠를 통한 체험과 학습의 자리를 만들고 싶습니다." 글=임연태 기자·사진=박재원 기자

“<법화경>, 마음에 새겨 보세요”

사경 2만부 봉안한 도림 스님

8월 16일 5000여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 평화통일불사리탑에서 <법화경> 사경 2만부를 봉안한 도림 스님(서울 법화정사 회주·사진). 스님은 1988년부터 제주 조천읍에서 <법화경> 사경 10만 소기 운동을 벌여왔다. 도림 스님의 사경운동에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100만여 명이 한글·영문·한자·로 참여하고 있다. 서울 법화정사, 제주 평화통일불사리탑, 천안 구룡사의 신도들은 자기가 6세만 되면 사경을 하겠다고, 성인이 되기 전까지 <관세음보살 보문품>을 108번 사경하도록 한다. 성인 신도들은 매년 <법화경> 사경을 하는 것이 의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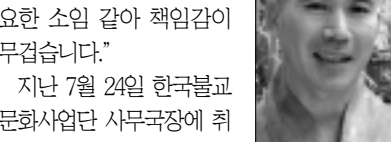


도림 스님은 1988년 조선시대 선교 양종과 승과 제도를 부활시켰던 허응보우(1509-1565) 스님과 화엄대법회를 개설하여 부처님 가르침을 대중화 했던 환성 지안(1664-1729) 스님이 척불정적으로 유배돼 순교한 장소에 법당 부지를 마련했다. 이후 법당에서 철야기도를 하던 중 부처님 복상에서 800년 된 고려시대 법화경 사경본이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병 들고 아려온 불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법화경> 원역을 시작해 6년에 걸쳐 책으로 펴낸 뒤 사경운동을 20년간 펼쳐왔다. 현재 제주 평화통일불사리탑에는 <법화경> 사경이 50만부, 천안 구룡사에는 30만부가 진공포장돼 봉안돼 있다. 스님은 "모든 사람들이 성불의 경전인 <법화경>의 가르침을 읽고 쓰면서 보다 좋은 인생과 가정을 만들었으면 한다"며 "사경이 이 시대를 대표하는 삶과 문화가 되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법회에서는 사경봉안식과 함께 보우 스님과 지안 스님의 석상을 제막했다. 두 스님의 석상은 순교한 바닷가가 내려다보이는 곳에 3m 높이로 조성됐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봉선사 회주 밀운 스님, 동국대 교수 진월 스님, 김태환 제주도지사, 박삼국 문화재위원장, 중앙사 제주 평화통일불사리탑 신도회장 등이 참석했다. 제주=김원우 기자 wkim@buddhapia.com

“서비스 정신 투철한 국제템플스테이센터로”

불교문화사업단 사무국장 마가스님

“현장에서 템플스테이를 지도할 때는 이것이야말로 한국불교 저변을 넓히고 현대화하는 ‘불무오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템플스테이 전체를 총괄하는 한국불교문화사업단 사무국장으로 취임해 보니 이제는 템플스테이만이 아닌 한국불교 전체를 아울러야 되는 매우 중



요한 소임 같아 책임감이 무겁습니다.” 지난 7월 24일 한국불교문화사업단 사무국장에 취임한 마가 스님(사진)은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스님은 한국불교문화사업단 사업 뿐 아니라 강원도 고성에서 건립될 ‘국제 템플스테이 센터’의 소프트웨어 부분을 담당할 예정이다. “국제 템플스테이 센터는 특히 외국인들이 많이 이용할 것으로 보이는데 외국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서비스 정신에 충실한 센터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마가 스님은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한국불교 미래를 담보하는 조직”이라며 “종도들을 비롯한 많은 불자들이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면 한국불교 미래도 밝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동우 기자

부천시 '평화통일기원' 종교인 대회 개최



‘평화 통일기원 부천지역 종교인대회’가 8월 12일 부천 석왕사(주지 영담)에서 열렸다. ‘2007 부천시민통일문화제’의 일환으로 열린 종교인대회에는 6·15 공동선언문과 평화와 통일을 기원하는 부천지역 종교인 선언문 낭독, 축하공연 등으로 진행됐다.

개운사 불교기초교리반 제1기 입학식



서울개운사주지 공원은 8월 14일 불교기초교리반 제1기 입학식을 개최했다. 입학식은 조계종 포교사단 후원으로 열렸으며 사부대중 50여명이 참석했다. 주지 공은 스님은 “신행에 모범이 되는 참다운 불자가 되라”고 당부했다.

맑고 향기로운 ‘연꽃의美’

조계사 보도팀 모동신씨 ‘연꽃 사진전’



2년 전부터 조계사 인터넷 보도팀에서 사진과 동영상 촬영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모동신(55·사진)씨가 8월 22-28일 서울 인사동 우림회관에서 연꽃 사진전을 개최한다. “마음을 맑고 향기롭게”을 주제로 열리는 ‘모동신 연화전(蓮華展)’에서는 그가 지난 10여 년간 찍은 연꽃사진 중 60여 점이 전시된다. “이번 사진전에서는 불교의 상징인 연꽃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생명력과 신비로움, 자연과 어우러지는 연기(緣起)의 이치까지 보여주고 싶습니다.” 사설 모씨는 30여 년간 환경·생태 사진을 촬영해온 전문 사진작가다. 그간 ‘동강’ ‘한국의 나무열매’ ‘알프스의 생태’ 등을 주제로 사진전을 개최한데 이어 이번이 8번째 개인전이다. 올해 4월 열린 ‘제1회 대한불교조계종 달력 사진 공모전’에서 금상을 수상하기도 한 모씨는 “앞으로 불자의 눈으로 탐과 사찰 목조건축을 사진에 담고 싶다”는 바람을 밝혔다. (02)733-3738 여수영 기자

봉선사 수행스님들 노후복지기금마련을 위한 자선음악회

불법승 상보에 귀의 합니다. 봉선사 4년간 주지소임을 맡으셨던, 철안스님께서 오는 9월말 소임을 회향을 합니다. 철안스님은 지난 4년간 운하 큰스님과 봉선사 대덕스님들의 총지를 이어 원력의 삶 속에서 2003년 주지 진산사 때 화환대신 축하의 쌀과 김장으로 공양을 받아 관내 760여 가구의 어렵고 소외받은 이들과 함께하였던 일부터 시작하여 지금까지 봉선사의 많은 불사를 원만하게 마무리하였습니다. 이는 문중 어른스님들의 가르침과 제방의 도반스님들, 봉선사신도들 사부대중 여러분들의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기도 합니다. 특히 스님께서는 제방의 수행현장에서 수행스님들의 열악한 노후복지문제를 늘 안타까워하여 소임기간동안 기금을 만들어 노후에도 오로지 수행에만 전념할 수 있는 초석을 만들려는 원력을 세우셨습니다. 이제 회향에 앞서 분사 주지소임기간 기념비, 간병비, 설법비, 축하금 등 4년 동안 모아두었던 사비를 봉선사 수행스님 노후복지기금으로 기탁하여 노후복지기금조성의 발판으로 삼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봉선도량에 아름다운 음성공양이 울려 퍼질 수 있도록 그랜드피아노를 회사하기로 하였으며, 이번 작은 음악회에서 30여 년의 역사를 지닌 봉선사합창단에서 연주를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꼭 참석하시어 이 자리를 아름답게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일 시: 불기2551년 8월 25일 토요일 오후 5시
◆장 소: 봉선사 옆 [아프리카문화원] 공연장
◆동참금: 봉선사 수행스님들 복지기금마련 취지에 동참하는 특별 찬조금 및 자비 동참금
◆복지기금찬조구조: 농협 204063-55-003055 봉선사
◆주 최: 봉선사 신도회·각 지역 및 신행단체
◆후 원: 아프리카문화원·조계종 제25교구신도회
◆문의: 봉선사 신도회 031)527-1962, 527-1951, 527-0717, 011-1745-5160

○한정된 좌석(약 500명)과 준비관계로 동참자는 8월 24일까지 연락 바랍니다.
○동참하는 모든 분께는 문화원입장권(입장 무료)과 아프리카문화원 공연관람권(전시장입장권) 및 연꽃차 무료사용, 맥, 다과, 음료, 기념품공양
○행사당일 광동대-봉선사-공연장까지 셔틀버스 운행
바스탑당 010-4815-1279

대한불교조계종 제25교구본사 봉선사신도회 올림

孝 우란분절 기도동참

은 성 사

저희 은성사에서는 칠월칠석 기도와 백중 기도를 아래와 같이 봉행합니다. 두루 동참하시어 무량 공덕 이루시기 바랍니다. 종각은 완성되었으며 범종은 불사중이니 많은 동참 바랍니다.

주 지 법 률

- 일 시: 8월 27일 (음 7월 15일)
■계좌번호: 농협 521013-56-014321 (은성사 한철성)

전북 고창군 고창읍 성두리 139번지 은성사
063)561-1826, 561-1783
010-5717-3323/010-3997-1826

중화사·서울포교당

저희 중화사·서울포교당에서는 칠월칠석 기도와 백중 기도를 아래와 같이 봉행합니다. 두루 동참하시어 무량 공덕 이루시기 바랍니다.

- 칠월칠석 기도 (8월 19일)
중 화 사: 오전 10시 30분 칠성각
서울포교당: 오후 6시 30분

- 백중 기도
중 화 사: 27일(일) 오전 10시 30분
서울포교당: 26일(토) 오전 10시 30분

중 화 사 신도회장 원명심
서울포교당 신도회장 명 여

중화사: 031)865-5520
서울포교당: 02)2299-8018